

‘흙스티벌’ 3일간의 현장!

글로벌캠퍼스 대동제 열려



▲글로벌콘서트 첫 째날 가수 사이의 무대에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진행했던 글로벌캠퍼스 봄 대동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동제는 ‘흙스티벌(HUFStival)’이란 타이틀에 맞게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오전에는 각 학과별 특징을 담은 부스가 차려져,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 등 일본의 전통음식을 준비한 일본어통번역학과 △그물이 있는 스틱을 이용해 골드에 공을 넣는 라크로스(lacrosse)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명수당 근처에 경기장을 설치한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가루로 된 염색제로 헨나(henna)를 그려주는 인도어과 등 각 학과마다 특성을 살려 과 부스를 홍보했다. 오후에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상대학 △인문대학 등에서 주점을 차려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학과별로 준비한 행사를 즐긴 이해랑(동유럽 · 폴란드어 12)양은 “신입생으로

처음 맞은 축제에서 각 학과 특성을 나타낸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3일간 글로벌콘서트(GLOBAL CONCERT)를 마련해 인기가수 △사이 △MC 스나이퍼 △다비치를 초청한 무대를 준비했다. 또한 축제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셔틀버스는 도서관까지 단속운행했으며 학생회관부터 인문 · 경상관까지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특히 총학생회에서는 ‘총학VS학우’라는 게임을 만들어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많은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게임은 총학생회장장과 부총학생회장장이 불특정다수의 학우와 뽕망치 게임을 해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마지막 날에는 총학생회장VS부총학생회장 대결구도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학생들은 승자를 맞춰 끝까지 맞춘 학생에게 아이패드(iPad)상품을 증정했다. 이현성

(통번역 · 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축제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해 축제는 학우분들 기억 속에 특별히 남을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천극장에서는 끊임없는 공연으로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첫날에는 제 27회 FBS가요제가 열렸다. 예선을 거친 7개의 팀이 경연을 벌인 끝에 명지대학교 압궁 짱이 우승을 차지했다. 가요제 총 연출을 맡은 최연주(어문 · 프랑스어 11) FBS국원은 “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며 내년에 더욱 새롭고 볼거리 가득한 가요제로 찾아뵙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밴드동아리인 △NSM △딜리셔스사이코(Delicious+psycho) △로그아웃 △어쩌다마주친 △아웃사이드(Outsider)의 공연이 이어져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우리학교, 아시아 대학 중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순위 6위

우리학교가 2012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의대 없는 종합대학” 중 아시아 6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와 영국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연구해 공동 발표하는 아시아 대학평가는 △연구능력(60%) △교육수준(20%) △졸업생 평판도(10%) △국제화(10%) 등 4개 영역과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아시아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한다. 연구능력(60%)은 △학계평가(30%) △교원 당 논문 수(15%) △논문 당 피인용수(15%) 등 3개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된다. 올해는 15개국 46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우리학교가 지난 해 평가보다 여섯 계단 올라 아시아 6위를 제패한 원인을 살펴보자면 졸업생 평판도와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이 괄목할 만하다. 각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볼 때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 해 39.9점에서 올해 61.3점으로 20점 넘게 올랐으며,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비율로 평가하는 점수도 2010년 71.4점에서 올해 86.9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0년부터 우리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원연구력 강화방안에 힘입어 교원 당 논문 수와 논문 당 피인용수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지난 해 보다 30% 높은 점수를 받은 학계 평가부분은 외국 학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대학 중 국내 학자보다 외국 학자들로부터 더 높은 학계 평가 점수를 받은 대학은 우리학교를 포함해 서울대, 카이스트의 3곳뿐이다.

국제화 부문의 평가는 △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의 비율 △해외에 나간 교환학생 비율 등 4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우리학교는 외국인교원비율에서 86.3점을 차지하며 3년 연속 국내 외국인 교수비율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10년 17위에서 올해 6위로,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

〈아시아 대학 중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순위〉

1	난양공대	싱가포르
2	홍콩폴리텍대	홍콩
3	중국과학기술대	중국
4	와세다대	일본
5	베이징사범대	중국
6	한국외대	한국
7	텐진대	중국
8	말레이시아 기술대	말레이시아

〈국내 20위〉

순위	대학	아시아순위 (지난해순위)
1	서울대	4(6)
2	카이스트	7(11)
3	포스텍	9(12)
⋮	⋮	⋮
13	한국외대	69(111)
14	경북대	70(61)

▲(학생 수 1만2000명 이상 기준) (Quacquarelli Symonds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속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부동의 1위를 석권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학하는 7+1제도 △2개 외국어 인증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제도 △교환학생제도 △복수학위제도 등의 다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제도가 종합으로 작용해 국제화 지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해 강연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평가된다. 전순영(영어 · 영문 10) 군은 “국제화를 제1로 표방하는 우리학교가 국제화지수 뿐만 아니라 연구능력이나 졸업생 평판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다만 강사대비 교수비율과 같은 요소 등도 학교위상에 발맞춰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3면에서 이어집니다.

지면안내

4 정도를 넘어선
학내포교활동

6 Hufstival을
사진에 담다

7 계절학기,
얼마나 알고 있나

8 사건의 현장에서 예술을,
파견미술가



흐려지는 나의 이성
흔들리는 교내 질서
(교내금주캠페인)



주폭(酒暴) 조심하세요

▲지난 해 4월 12일(화) 발행된 외대학보 938호 2면에는 글로벌캠퍼스 해운식 뒷풀이가 배움의 전당인 강의동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강의동에서 음주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던 기사였다.

6월, 기말시험이 한창인 지금 3월이나 할 법한 음주이야기를 꺼내는 건, 일 년에 한번쯤 있었던 해운식 뒷풀이와 같은 학내 음주가 어느새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도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해마다 학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 ·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었다. 실제로 학내 기물파손을 하는 학생들부

터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 과도한 음주로 엠블란스에 실려가는 학생들, 선배가 강제로 먹이는 술을 억지로 먹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학생들까지 음주로 인한 사건 · 사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을 정도이니,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주폭’이라는 단어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주폭에는 이처럼 심각한 사건 · 사고를 일으키는 행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 또한 ‘폭력’이다. 도서관 앞에서 밤새도록 운영되는 주점은 도서관에서 혹은 학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술에 취한 누군가의 고성방가가 학내를 뒤덮는다.

기숙사생들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따로 없다. 동이 틀 무렵, 신나게 음주를 즐기던 곳은 널브러진 술병들과 쓰레기, 토사물들이 대신한다. 때로는 그 정도와 횟수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내 음주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흙스 라이프’에서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도 학내 음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 · 사고들이 학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이 ‘주폭’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교에서 음주를 즐긴다는 것에 우리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

편집장

학내 브리핑

인문 · 경상관 공사 중

지난 달 29일(화)부터 인문 · 경상관 후면의 수해복구 공사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착공은 30일(수)부터 이번 달 8일(금)까지 진행된다. 인문 · 경상관에는 지난 해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밀려오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시설관리팀은 이번 해 장마를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사를 진행했다. 손상된 우수관을 새로 교체하고 토사와 낙석을 방지를 위한 톤생벚짚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중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보행에 큰 방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 준비, 학교가 응원 합니다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공모전 참가를 지원한다. 이번 ‘2012 공모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고 적극적인 자기 PR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 또는 최대 4인으로 구성된 공모전 참가자에게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원 분야는 △정부기관 △공기업 △대 ·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논문 △광고 △영상 △마케팅 △정책제안 등이 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부터 다음 해 1월까지며 신청 장소는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 후복관 302호다.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하세요

이번 달 4일(월)부터 8일(금)까지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가 이뤄진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 당 74,000원으로 우리은행 전국지점에 납부하거나 등록금 고지서상에 있는 본인명의로 가상계좌(이용시간: 09:00~17:00)에 입금하면 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목록이 사라지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수강료 납부를 할 수 없다. 수강료 납부확인은 납부 다음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한편 계절학기 시간표는 15일(금) 이후 학교 홈페이지의 ‘Hot-link’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이번 달 18일(월)에 개강해 다음 달 9일(월)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버리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어려운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릴 때 어느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진아(사회 · 자전 11)양은 학내의 쓰레기통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쓰레기통 분류가 일반폐지류와 캔 · 병류, 이렇게 둘로만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쓰레기를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 지 헛갈려서 그냥 전부 일반폐지류 통에 넣는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분리수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목) 아침 6시 서울배움터 국제학사와 사회과학관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직원들을 만났다. 등교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지만 5시 반에 출근한 직원들의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사회과학관에서만 가득 채워진 10L 용량의 쓰레기봉투가 10개 이상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학사의 미화를 총괄하는 서원두씨는 “쓰레기의 양이 많은 것보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서울배움터의 쓰레기통은 일반 폐지류와 캔 · 병류로 나뉘어 1차적인 분리수거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쓰레기통을 모두 뒤집어 처음부터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두씨는 “쓰레기통은 두 개로 구분돼 있지만 막상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전혀 구분 없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버리는 사람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쓰레기통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면에서 일괄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시설관리팀 윤



▲국제학사 4층에서 시설관리직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이식 팀장은 “한 건물의 쓰레기통을 바꾸는 데에도 수 백 만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금처럼 쓰레기통을 뒤집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과학관의 한 시설관리직원은

“한 번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나면 장갑이 너무 더러워지는 탓에 먼 장갑을 오래 쓰지 못한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조금만 더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여름방학, 영어로 불태우자!

외국어교육센터 학점인정 영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우리학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글로벌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점인정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영어 프로그램은 7월 10일(화)부터 8월 3일(금)까지 4주 동안 글로벌캠퍼스 제2기숙사 세미나실 및 공학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크게 토익(TOEIC) 반과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회화 반으로 나뉜다. 영어회화 반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원어민 수업이 진행된다.

토익 반은 하루 6시간 반 동안 강의가 이뤄지며 담당 교수들의 지도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토익 반에서는 모의 토익시험이 5회 제공되고 영어단어 및 문제풀이 스터디도 함께 진행된다.

영어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교양과목이 2학점 인정되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학점까지 늘려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어가산점이 200점 인정되며 06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실용영어 선택영역으로 학점이 인정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학생 평가는 출석 50%, 성취도 50%로 결정되고 총점 70점 이상 시 영어 프로그램을 패스(Pass)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ilec.hufs.ac.kr>)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이번 달 6일(수) 자정까지이다.

영어 프로그램 기간 중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은 학생은 영어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숙사 신청여부 확인란에 체크하면 7월 7일(토)부터 8월 4일(토)까지 4주 간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글로벌캠퍼스 동아리인들이 한자리에

동아리인들이 화합하는 동아리의 밤이 지난 달 25일(금)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해에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글로벌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주관했다.

지난 해 동연이 진행했던 북볼복 마라톤은 참여율이 저조했고 모든 동아리가 화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예상하기 위해 티켓을 발행했으며 수업을 마친 저녁시간에 자리를 마련했다. △닭싸움 등 간단한 게임 △상품추첨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생긴 사연읽기 △주점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 마스터피스(master-piece)의 박은술(공과 · 산업경영 11)양은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친구의 사연이 선정돼 읽혔는데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

어 감회가 새로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이번 동아리의 밤은 특정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한편 동아리 에스페란토의 일원인 김경수(통번역 · 태국어 11)군은 “동아리들 간에 친목을 다지기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속된 동아리뿐 아니라 다른 동아리 사람들과도 친해 질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동아리의 밤을 준비한 한재준(공과 · 디지털정보 08)동연 부회장은 “다양한 동아리의 참여로 인해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더 발전시켜 앞으로 연례행사로 정착시켜 볼 생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한국어교사양성과정 28기 수강생 모집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어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 2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취득 희망자 사전 이수 코스임)

구 분	일시/기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12. 06. 04(월) ~ 2012. 06. 15(금)	www.korean.ac.kr	
입학지원 및 서류제출	2012. 06. 04(월) ~ 2012. 06. 15(금) 17:00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7층 705호)	우편제출의 경우 2012. 06. 15(금)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12. 06. 18(월)~06.20(수)		
합격자 발표	2012. 06. 22(금) 14:00이후	www.korean.ac.kr	
합격자 등록	2012. 06. 22(금)~06.27(수)	납입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1. 전형일정
2. 모집인원 : 00명
3. 교육기간 : 2012. 07. 02(월) ~ 2012. 08. 03(금)
4. 수업요일 및 시간 : 월~금 09:30~17:30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6. 전형료 및 교육비
가. 전형료 : 20,000원

- * 전형료 수납방법
우리는행 계좌 (1005-401-105222 /예금주 : 한국외국어대학교)으로 무통장 입금 후 입학지원서 제출 시 입금표(복사본 가능) 함께 제출함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나. 교육비 : 1,365,000원
다. 입학금 : 50,000원

7. 제출서류 및 특전
* 본원 홈페이지 www.korean.ac.kr 참조

8. 기타
가. 접수 기간 중 접수시간은 09:00~17:00, 토, 일요일은 휴무
나. 서류제출은 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보낼 곳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7층 705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문화교육원으로 문의 바람
■ (02) 2173-2259, cklace@hufs.ac.kr

서울배움터 상반기 정기총회 무산

성원부족에도 논의 열기 뜨거워

지난 달 23일(수)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2012년 상반기 전체학생정기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정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10분의 1인 891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날 정총은 총 출석이 803명에 그쳐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때문에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과 투표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논의안건들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논의안건으로는 △본·분교 통폐합 △복수전공 △등록금 △자치공간이 4대요구안으로 상정됐다. 4대요구안 중 복수전공 제도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수민(경영·경영 08) 글로벌경영대 학생회장은 복수전공으로 인한 단과대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발의했다. 또한 복수전공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제도 이행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성섭(서양어·이탈리아어 10) 서양어대 학생회장은 “각 캠퍼스에 없는 학문수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수전공의 원래 취지에 맞게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경영학은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1월 30일(수)에 공지한 복수전공제도 개선 시행안을 복수전공제도 시행규정에 반영하고 △학과별 시험 및 면접을 시행하며 △글로벌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한 경영학은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 의결은 앞서 21일

(월)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결정됐다.

그 외의 논의안건에 대해서도 결의문이 채택됐다. 정총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정총이 끝난 뒤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한 뒤 해산했다. 총학생회 측은 주요 안건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질의서 응답을 요청한 상태이고 총장과의 만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늦게 건설된 탓에 정총 성사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비록 무산됐지만 앞으로 있을 학생회 활동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양 배움터 학생대표 번갈아 참석

지난 달 24일(목) 열린 대평의원회(이하 대평의)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양 배움터 학생회장이 번갈아 참석하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동안은 대평의 학생대표 2명 중 서울배움터 학생대표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학생대표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3월 1일(목)이었다. 이날 △대평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장

△재단 이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선제로 당선된 학생대표(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가 아닌 지난 해 12월 31일(토)자로 임기가 만료된 정민형(사회·정의 05) 전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이 이번 해에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2012학년도 대평의 의원이 될 학생대표가 선출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건설된 이후

에도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울배움터뿐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의 학생들을 대표할 사람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24일(목) 열린 대평의에서 투표를 통해 양 배움터 학생대표가 번갈아 참석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앞으로 열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양 배움터 학생대표 중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교대로 참석하게 된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일반대학원 축제 성황리 개최

지난 달 25일(금) 대학원 앞 운동장에서 ‘일반대학원 한마당’ 축제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일반대학원을 구성하는 학과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에 따라 모든 학과가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정보기록관리학과 △철학과의 열정적으로 교류에 참여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 대학원 한마당에서는 학교생활 및 총학생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

문지를 실어 학생들의 복지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축제에 참여한 김자람(국어국문학 11)양은 “식사를 다함께 하고 경품도 받으며 평소에 동참하지 못했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렇게 훈훈한 자리가 앞으로도 종종 더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경영대학원에서는 박진우(경영정보학 11)군은 “대학원에 진학하면 타 전공 학생들과의 교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옥은실 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람이 크다”며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학생들의 의견은 총학생회 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인문·예술, 사회과학·경영학 분야에서 두각 보여

◀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학문 분야별 학계평가 국내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우리학교가 인문·예술과 사회과학·경영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도 짐작 할 수 있다. 학문 분야별 학계 평가의 국내 순위는 각 학문분야에 소속한 학과들이 제출한 국제 논문 건수를 종합하여 점수가 매겨진다.

인문·예술학 분야에서 우리학교는 지난 해 7위에서 올해 5위로 올랐으며, 사회과학·경영학 분야에서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위의 성적을 거뒀다.(표 참조) 괄호의 순위는 아시아 순위이므로, 우리학교의 해당 학문분야가 아시아 수준에서도 격상했음을 알 수 있다.

〈학문 분야별 학계평가 국내 순위〉

1) 인문·예술

순위	2011년	2012년
1	서울대(6)	서울대(6)
2	연세대(13)	연세대(12)
3	고려대(14)	고려대(15)
4	경희대(22)	이화여대(20)
5	이화여대(26)	한국외대(27)
6	서강대(32)	서강대(30)
7	한국외대(41)	카이스트(39)

*괄호 안의 수치는 아시아 순위

2) 사회과학·경영학

순위	2011년	2012년
1	서울대(5)	서울대(5)
2	고려대(15)	고려대(12)
3	연세대(18)	연세대(13)
4	경희대(31)	성균관대(22)
5	성균관대(36)	경희대(26)
6	서강대(39)	서강대(30)
7	한양대(40)	카이스트(34)
8	카이스트(43)	이화여대(36)
9	이화여대(44)	한양대(38)
10	부산대(54)	부산대(46)
11	한국외대(82)	한국외대(50)

*괄호 안의 수치는 아시아 순위

〈국제화 부문 국내 순위〉

1) 외국인 교수비율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1	한동대	한동대(17)	포스텍
2	포스텍	포스텍(18)	서경대
3	한국외대(23)	한국외대(24)	한국외대(23)
4	홍익대	서경대(29)	한세대

*괄호 안의 수치는 아시아 순위

2)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1	한국외대, 경희대, 이화여대(1)	한국외대(1)	한국외대(3)
2	-	경희대(6)	경희대
3	-	이화여대(8)	서울시립대
4	성균관대	대진대(15)	동국대

*괄호 안의 수치는 아시아 순위

DAEHYUN
블루 타워

도전과 열정의 35년 패션 신화

35TH
ANNIVERSARY

DAEHYUN 주식회사 대전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38-11 대원블루타워 www.dae Hyun.co.kr

BLU PÉPÉ

CC collect.

MOJO.S.PHINE
NEW YORK

THE ZOO C
MEET THE SUNSHINE

DEWL

우리학교 학생 85.54%, ‘학내포교활동 규제·개선 필요하다’

△“도를 아십니까?” △“인생의 진리를 찾고 계신가요?”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학교 내에서 특정 종교나 교리를 포교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도 벌써 오래, 점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포교 정도도 심화돼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지금의 학내 포교활동, 이것이 최선일까?

편집자주

◆ “학내 포교활동…정상적인 학교생활까지 위협한다니까요”

학교를 다니다보면 곳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몇몇 무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공간 시간을 이용해 교정의 신록을 만끽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다. 한 쪽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듣고 있는 경우다. 듣고 있는 쪽의 난감한 표정들을 보자면 듣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잡혀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바로 학내 포교활동의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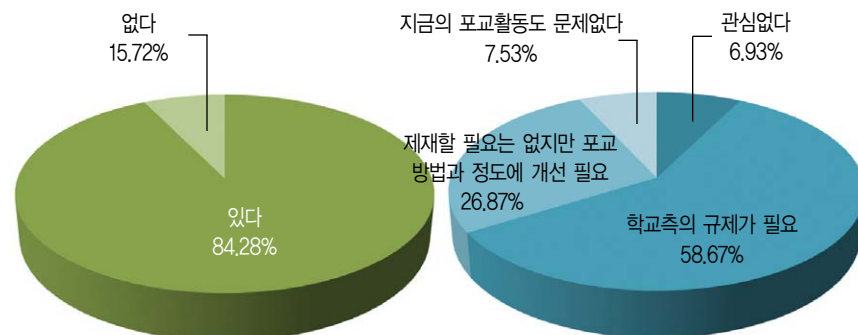
본지는 학내 포교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양 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는 질문에 84.28%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58.67%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방해되니 학교 측에서 규제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제재 할 필요는 없지만 포교활동의 방법과 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6.87%에 다다르는 것을 볼 때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학내 포교활동에 개선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뿐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각종 피해사례 제보도 빗발쳤다. “얼마 전 일인데, 1, 2교시 수업시작 전이었습니. 어떤 C교 동아리가 도서관 앞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아침부터, 그것도 도서관 앞에서 소음을 일으키다니요. C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히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종교를 방자해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절해도 끈질기게 쫓아와서 급한 일정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다는 제보도 있었다. 믿는 자의 자유만큼 믿지 않는 자들의 자유도 지켜줘야지 특정 교리를 수용하기를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불쾌감과 위협감 조성 △개인 일정에 지장 초래 △민



학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종교인의 학내 포교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간 : 2012년 5월 29일 ~ 5월 31일 대상 : 양 배움터 학생 1500명

지 않을 자유의 침해 등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 눈에 보이는 문제, 손에는 잡히지 않는 대책

본 기자도 얼마 전 학생회관 일층에서 D교를 포교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상대는 일상적인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더니 자연스럽게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주제를 옮겼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기에 기숙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에 응한 지 반 시간, “이제 그만 일어나봐야 한다”는 거절에도 상대는 끈질기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기자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돌아와서 살펴 본 서울배움터 종교분과 동아리 명단에서 D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학내에서 활동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속과 활동내용을 학교에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속 성분이나 활동 내용을 인정받지 않은 외부 단체들의 학내 포교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측이 민원을 반영 해 학내 포교 활동 제재에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배움터 학생감동팀의 옥진호 팀장은 “기본적으로는 학생활동의 자율을 존중합니다만 특정 단체들의 행동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제재돼야 마땅

하다”며 “동아리로 등록돼 활동하는 학내 종교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고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부 단체”라고 말했다. 홍길동처럼 출몰하니 단속도 쉽지 않고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가 포교활동을 하나’ 대화내용을 다 들 어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정말 관심이 있어서 포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제3자로서 그것을 말려야 할 자격이 있나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그의 저서에서 “종교에 관한 믿음과 실천은 신자들을 하나의 도덕공동체로 통합시킨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과 관련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내 포교는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적대감’을 공유하면서 연대를 이루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승교(경영·경영 06) 군은 “학내 포교활동을 막을 뚜렷한 방법도 없고, 그들의 종교적 자유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의 불편을 막을 방법은 포교 단체 스스로의 조절인 것 같다”며 “포교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단체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안지혜 기자 84lady@hufs.ac.kr



▲ 왼쪽부터 △철학과 06 박용준 △사학과 09 김소담 △인문대학장 철학과 임일환 교수 △언어인지와학과 10 양상모 △사학과 학과장 김상범 교수 △언어인지와학과 학과장 채희락 교수.

인문학도들의 잔치, 인문인상 시상식 열려

지난 달 31일(목)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로비에서 인문인상 수상식이 진행됐다. 인문인상은 2010년도부터 시작돼 매 학기마다 시상식이 열린다. 인문대에 속한 △언어인지와학과 △사학과 △철학과에서 각 과별로 학과장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 한명씩을 뽑아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성적이 최우선 조건이 되는 타 장학금 수상과는 달리 인문인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인재를 추천받아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선이 되는 조건은 △봉사활동 △학교활동 △학사활동 등이다.

이번 인문인상 수상자로는 △언어인지와학과 10학번 양상모 △사학과 09학번 김소담 △철학과 06학번 박용준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감사패, 그리고 부상으로 독서대가 수여됐다. 이 날, 신재구(인문·철학 09)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좋은 분위기에서 인문대학 학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고 이번 인문인상을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 수상자인 양상모 군은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획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상을 받게 돼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군은 “인문인상

을 주시는 취지는 단순히 인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 넓은 공부를 하라고 독려해주는 것”이라고 말해 인문인상에 대한 좋은 취지를 한층 더살렸다.

한편, 다음 학기부터는 과 내에서의 추천을 통해 인물을 선정해 폭넓은 학생이 수상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또 매년 인문대 학생이 전부 한 곳에 모이던 방식에서 각 과별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임일환 인문대학장 교수는 “우리 학교 인문대학이 전국 인문대학 순위 중 5위로 선정된 만큼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충분히 갖길 바란다”고 조언하며 “앞으로도 선정될 인문인들이 타 학생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운 기자 84beginning@hufs.ac.kr



◀ 수상자 김소담 학생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외대사랑ARS 060-700-0202

여러분의 **학교사랑**이 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북미-미국



유럽-러시아



아시아-아프가니스탄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 듀이 앤드 르부프가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의 로펌 역사상 최대규모의 파산으로 알려졌다. 듀이 앤드는 최근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변호사들의 급여를 삭감했고 재정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다른 로펌과의 합병을 모색했으나 결국 합병 대상을 찾지 못했다. 한때 듀이 앤드 르부프는 전 세계 15개국에 1천4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로펌이었다. 현재 해당 로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을 남기고 앞으로 회사의 파산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기를 잔뜩 실은 러시아 화물선인 프로페서 카츠먼호가 지난 26일(토) 시리아 항구인 타르투스 항에 도착했다고 서방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시리아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시리아로 무기수출을 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후원을 업고 러시아가 이 제재를 막은 바 있다. UN 반기문 사무총장도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수출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달 29일(화) 아프간 북부 타카르 주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는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아프간 보수 과격파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약 156명의 여학생이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독성 가스에 중독된 아메나 잔 양은 "교실에 들어갔는데 구토가 나기 시작하더니 의식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타카르 지역병원에선 중독된 학생들의 혈액 샘플을 수도 카불에 있는 연구소로 보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학생 교육을 반대하는 그들의 학교 테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북미-미국



유럽-그리스



아시아-시리아

지난 30일(수)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4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시내 주차장으로 도망갔다. 범인은 주차장에서도 한 여성을 죽이고 그녀의 차를 훔치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장에서 나와 5시간 넘게 도망가다 경찰이 뒤쫓아오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의 동생은 경찰 진술에서 평소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애틀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총기 난사로 사망한 희생자가 21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지난 달 28일(월)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4대 은행에 180억 유로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에 처한 그리스 4대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과의 거래를 다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조치로 알려졌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증원으로 투입된 이러한 자금 지원으로 △내셔널 뱅크 △유로뱅크 △피레우스 뱅크 등 4개의 그리스 은행들은 기사화생하게 됐다. 한편 이들 그리스의 4개 은행은 1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시리아 반군의 근거지인 훌스 주의 홀라에서 지난 달 25~26일 양일간 계속된 정부의 무차별 공격으로 최소 108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시리아 정부에 비난을 표한 반면 시리아 정부는 학살이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무장 단체를 비난하고 있다. 국제 중재 활동가 코피 아난은 시리아 정부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자국의 시리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흠산 인 더 월드 (hufs in the world)

고아라(상경·국통 09)

최고의 선택이 된 중국 교환학생

브릭스 이중전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경외대에 온 것도 벌써 한 학기가 지났다. 매섭게 추던 2월, 공항에 내려 무거운 캐리어를 끌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초입이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말 후회 없는 학기였고 한국 내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직접 느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중국이 가진 잠재력 때문인지 중국에는 러시아, 미국, 일본, 홍콩, 프랑스, 예멘,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북경외대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우리 반 교실 바로 옆에 무슬림들을 위한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실 하나를 개조해 그들을 위한 사원을 마련해 놓았는데, 무슬림 친구들은 예배당을 찾아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곤 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들은 햇볕이 쨍쨍한 날이면 짧은 민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편한 슬리퍼를 신은 채 로비 계단에 걸터앉아 햇빛을 즐기기에 바쁘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휴식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한국인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기 좋아하는 특징을 보였다면 일본인 친구들은 깊이 받아들이고 되새기며 이해하려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 친구들은 매일 '완후이'라고 불리는 반 회식자리 분위기를 주도하며 다양한 웃음거리를 선사했다.



▲중국생활을 통해 그동안 가지 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여유와 휴식의 소중함을 배웠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 각지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베이징 생활은 이토록 '따로 또 같이'이다. 서로 다른 특징과 성향으로 그 다름이 가끔은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해결 무렵 테라스에 앉아 양꼬치와 맥주를 함께 먹을 때면 우리는 영락없는 20대 초반 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제 한 달 뒤면 이토록 많은 추억을 함께한 외국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한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사이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남았다.

브릭스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온 것은 내가 대학시절 한 선택 중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학교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특히 낯설기만 했던 외국인 친구들과 어려운 중국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때에 늘 내 곁을 함께해주던 것은 바로 외대에서 함께 떠난 브릭스 동기들이었다. 함께 베이징의 관광명소를 여행하고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은 아마 내 대학시절 중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다들 각자의 꿈과 미래를 위해 베이징을 떠나 다른 길을 가겠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베이징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 큰 꿈을 위해 힘찬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 짜야요!

흠스피킹 (Hufs+speaking)



▲ 열람실에서

A : 안녕? 공부하러왔어?
B : 응, 시험 공부하려고해, 넌?
A : 나는 과제하려고 왔어.
B : 열람실 잔여석이 있을까?
A : 있어. 그리고 열람실 좌석 이용은 학생증으로 할 수 있어.
B 고마워. 같이 공부하자.

포르투갈어		
A : Oi! Você veio para estudar? 오이! 보쎬 베이우 바라 에스투달? B : Sim. Vou estudar para a prova. E você? 썬. 보우 에스투달 바라 아 브로바, 이 보쎬? A : Vim para fazer minha tarefa. 빙 바라 빠제르 미냐 따레파. B : Terá a vaga no salão de estudo? 테라 아 바가 누 살렁 지 에스투두? A : Tem. E você pode reservar um assento pela cartão de estudante. 땡. 이 보쎬 보지 헤제르바 응 아벤두 벨라 카르땡 지 에스투당썬. B : Obrigado. Vamos estudar juntos. 오브리가두, 바무스 에스투다르 쥘투스.		
단어장		
공부	Estudo	에스투달
과제	Tarefa	따레파
열람실	salão de estudo	살렁 지 에스투두
학생증	cartão de estudante	카르땡 지 에스투당썬

이란어		
A : سلام. برای چی اینجا امیدی درس خواندن? 쌀름. 바라예지 인저 우마디? 다르스컨단? B : بله. میخواهم درس امتحان بخوانم. تو? 발레. 미کم 다르세 엠테헌 베컨담. 토? A : من ادمم برای تکلیف. 만 우마담 바라예 타클리팜. B : در سلسن متالعہ چا دارد? 다르 쌀로네 모틸레에 저 데레? A : بله. دارم. میتوانی از کارت دانشجویی جای سلسن متالعہ را استفاده کنی? 발레. 데레. 미투니 아즈 커르테 데네쉬주이 저에 쌀로네 모틸레에러 에스테페데 코니. B : مرسسی. باهم درس کنیم. 메르씨. 버함 다르스코님.		
단어장		
공부	خواندن	다르스컨단
과제	تکلیف	타클리프
열람실	سلسن متالعہ	쌀로네 모틸레에
학생증	کارت دانشجویی	커르테 데네쉬주이

HUFStival

글로벌캠퍼스 대동제 흡스티벌(HUFStival)이 지난 달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3일 동안 학과별로 준비한 먹거리와 놀이를 비롯해 초청 연예인의 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차고 즐거웠던 대동제. 뜨거운 5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를 사진에 담았다. **편집자주**



평~! 터지기 1초 전

오후의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주는 게임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물풍선 던지기. 물풍선을 함꼐 던지는 이와 그 물풍선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의 모습이 보인다. 지켜보는 이도 침을 꿀꺽 삼키게 만드는 긴장의 순간! 인문·경상관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물풍선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맞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타코야키 먹으러 오세요~

“이랏사이마세(어서오세요!!!)” 대동제에서는 세계각지의 다양한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전통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 올해 일본어통번역학과가 준비한 음식은 일본의 대표간식 타코야키! 달짝지근한 소스에 고소한 반죽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요리하랴 손님맞이 하랴, 바쁜 와중에 찰칵!



“워이~워~이 돌아가세요.”

축제가 시작되고 학생회관 앞에서 인문경상관으로 이어지는 길의 차량이 통제됐다. 안전봉을 들고 학생회관 앞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피곤함을 찾을 수 없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3일 내내 안전통제를 한 이들,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만하다. “여기부터 금차구역입니다. 워이~워~이 돌아가세요~!”



막대사랑은 사랑을 실고

축제기간이 되면 우뚝 눈에 띄는 커플들. 짝이 없는 솔로들은 옆구리가 시릴 뿐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두근두근 츄파춥스! 총학생회 부스에서 500원짜리 막대사랑을 사면 이름 모를 이상의 번호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재미 반, 호기심 반. 내 짝은 어디에?



당신은 진정 공연의 신이신가요?

대학축제의 감조는 초청연예인들의 공연. 우리학교에는 3일에 걸쳐 △MC스나이퍼 △다비치가 다녀갔다. 그 중 제일 많은 인파가 모인 날은 가수 사이의 공연이 있던 날이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주민들도 한데 모인 가운데 싸이는 노천극장 일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거드랑이에 땀이 많다는 사이. 환호하는 관객들의 그 곳에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떠났다.

사진 문나윤, 서상아 기자
글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계절학기, 그 불편한 속사정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도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학생들은 더 높은 학점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이수하기에는 빠듯했던 전공학점을 채우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지 못한 과목을 재수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섣뭉히 계절학기를 듣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수강료가 한 학기 등록금 못지않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계절학기 수강료를 감당할 수 있다하더라도 계절학기에 과목자체가 개설이 안 되서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계절학기,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부담 없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는 없을까.

편집자주



계절학기 수강생들의 남모름 고민

사례①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이번 하계 계절학기에 3학점을 신청한 홍채원(숙명여대)양은 얼마 전 받은 계절학기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고지서에는 학점 당 90,000원, 총 270,000원이라는 수강료가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홍 양은 “정규수업만으로는 졸업학점을 채우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번학기 처음으로 계절학기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비싼 계절학기 수강료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숙명여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해 여름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 당 △건국대 85,000원 △연세대 110,000원 △이화여대 90,600원 △중앙대 90,000원 △한양대 87,000원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점 당 8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사례② 정규학기 전공 수업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윤미소(한양대)양은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이번 계절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 윤 양이 수강을 희망하는 전공과목은 찾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책으로 생각해 놓은 다른 과목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수강신청 당일 3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이 되는 바람에 결국 그녀는 계절학기 수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윤 양은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전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목을 개설했으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계절학기 고민, 우리학교 학생들도 예외는 아냐

이것은 비단 다른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비싼 계절학기 수강료와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점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에서는 지난 달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이메일을 통해 양 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658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대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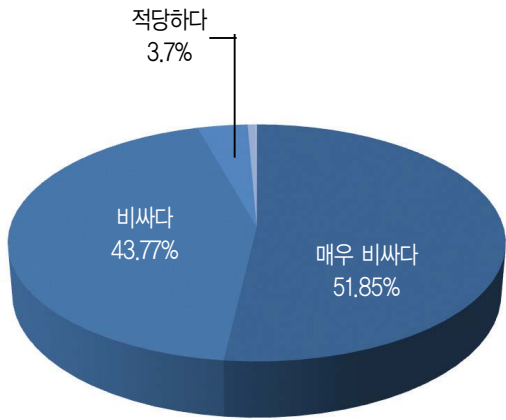
◆계절학기 등록금, “타 대학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부담”

우리학교의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 당 76,000원으로 앞서 살펴본 서울시내의 다른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절학기 수업이 기본 2학점 또는 3학점임을 감안할 때 최소 수업료는 152,000원, 228,000원으로 결코 부담 없는 금액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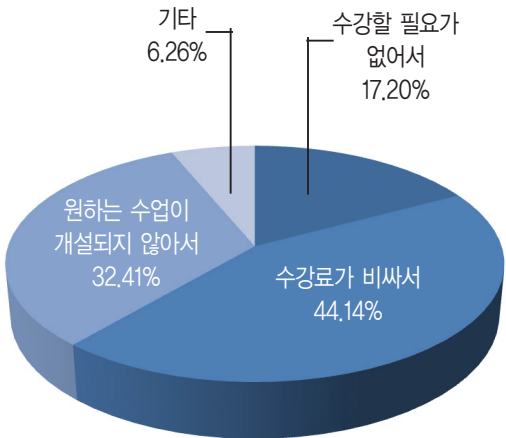
계절학기 학점 당 수강료	
대학	수강료
건국대	85,000원
국민대	80,000원
동국대	90,000원
서강대	98,000원
서울시립대	35,000원
세종대	65,000원
성균관대	91,000원
연세대	110,000원
이화여대	90,600원
중앙대	90,000원
한양대	87,000원
한국외대	76,000원
홍익대	80,000원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경험자)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절학기 수강미경험자)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 : 2012년 5월 29일~2012년 5월 31일
조사대상 : 양 배움터 학생 1658명

◆수강하고 싶어도 수강할 수 없는 전공과목

한편 설문조사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한 적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32.4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정원(중앙대 · 이란어 11)양은 “이중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는 우리학교 특성 상, 학기 중의 수업만으로 전공학점과 이중전공 학점을 모두 채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비해 계절학기에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양과목에 한하여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계절학기 과목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과목은 계절학기 수요조사를 학과의 재량에 맡겨 일괄적인 수요 파악이 어렵고 사실상 소수의 학과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해 계절학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경제학과의 정상협(상경 · 경제 10) 학생회장은 “그 동안 경제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만큼 계절학기에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며 “학과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들의 실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수님들과의 협의 끝에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원·원하는 계절학기를 위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2012년도 자금예산서를 참고하면, 계절학기 수강료의 수입 1,810,158,000원은 △교원제 수당 중 강사료 62,120,000원 △시간 강의료 600,000,000원 △교재 복사비 400,000원

계절학기 수요조사

경제학부 2012 -1 계절학기 실수요 조사

설문에 참여하시기 전에 **필독** 바랍니다!!

1. 본 설문은 경제학부 및 경제학전공 수업의 계절학기 개설을 위한 실수요 설문 조사입니다. 즉 어떤 수업의 일정 수준의 실수요가 있을 시 학부장실에 개설을 건의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2. 실수요 조사인 만큼 수업이 개설됐을 시 꼭 수강하실 계획인 수업에만 항목 체크 해주세요.

3. 1인 당 2과목까지 항목 체크 가능합니다.(계절학기 최대 신청 학점이 6학점임을 고려했습니다)

4. 첫수강 보다는 재수강하실 계획인 수업에 항목 체크 부탁드립니다 (첫수강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전공선택보다는 전공필수 과목이 열릴 가능성이 큼니다.(원론 1,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학과에서 실시한 계절학기 실수요 조사 <출처 경제학과 학생회 홈페이지>

△기타 77,990,000원에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지출명목으로 계절학기 수강료의 인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만족도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학교의 경우 학교 측에서 본격적인 계절학기 수요에 앞서 전체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계절학기 과목 개설에 반영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성 교무처장은 “각 과별로 전공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두고 학생들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요조사는 학과에 맡기고 있다”며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계절학기에 해당 전공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답했다. 소수어과의 경우, 전공과목의 계절학기 개설을 원하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기

“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학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

때문에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경대학이나 글로벌경영대학 등은 전공 학생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중전공, 부전공자의 수도 많아 계절학기 전공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계절학기 이전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측의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대성 교무처장은 “계절학기에 관한 학생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수업 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차원으로 인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을 심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계절학기에 관해 학생들의 생각이 스스로 변한다면 학생들의 높은 의존도가 줄어들고 좀 더 계절학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혁(서양어 · 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계절학기 수강료의 경우는 등록금과 달리 학생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볼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체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학생들의 전공학점 이수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만 해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학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달콤한 방학 중의 3주라는 시간이 더 의미 있는 배움의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 연극 <옥탑방 고양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뒤를 이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직장

을 추구하고 다음으로 높은 보수를 중요시여기기 때문이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마음이 어디 청소년뿐이라. 안정적인 직업, 높은 보수 등 현실을 쫓는 삶 속에서 당신도 어느새 꿈이 없어진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매일 겪지만 꿈꾸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연극 <옥탑방고양이>를 살펴보자.

제목만 들어서는 옥탑방에서 만난 남녀의 연애사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을 살펴보면 조금 생각이 바뀐다. 여주인공 '남정은'은 사람들이 자신이 쓴 대본으로 만든 드라마를 보고 힘을 얻길 바란다. 남주인공 '이경민'은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냄새 나는 집을 짓길 소원한다.

그러나 그 둘 모두 꿈만 향해 달려가기엔 눈앞에 닥친 현실이 고달프기만 하다. 정은은 시청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만나고 경민은 집안반대에 부딪힌다.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옥탑방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매일 꿈을 향한 열정을 키워간다. 극 대단원의 막이 내려도 그들은 달라진 것 없이 취업준비생이다. 하지만 꿈을 갖고 언제나 도전하기에 미래가 그리 어두워보이지 않는다. 정은과 경민은 현실에 부딪혀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했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 노력하면 된다.'

꿈은 있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섰듯 욕망을 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한다. '청춘이여, 일단 시작하라.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겸손하게 사회에 발을 디뎌라'라고. 앞으로 더 큰 인생을 맞이할 당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다면 눈 딱 감고 무조건 도전하는 정은과 경민이 돼 보는 것이 어떨까.

현장 속의 예술가, 파견미술가들

△대추리 △기룡전자 △용산 △강정마을은 참사와 농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투쟁의 현장들이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주저없이 뛰어드는 예술가들이 있다. 바로 파견미술팀이라는 10여 명의 작은 모임이다. 노동자들 틈에 예술가라니, 그들이 현장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른 세상에 미술이라는 재능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상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행위예술중인 전미영 조각가.(가운데)

◆파견미술가를 아시나요?

미술가면 미술가지, 파견미술가는 또 뭐라고 생소하게 느껴질 법도 하다. 이들의 명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아래에 있는 파견노동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파견노동자들은 보험은 물론 고용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파견미술가의 '파견'이란 명칭은 노동자들처럼 힘든 현장에 파견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노동이 아닌 미술을 하는 이들이기에 뒤이어 '미술가'라는 명칭을 더해 비로소 파견미술가의 뜻이 완성한다. 파견노동자와 차이가 있다면 파견미술가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다가가겠다는 점뿐이다. 하지만 파견미술가라고 해서 항상 농성의 현장에서만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그들은 각자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미술가일 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들은 파견미술가로 변신한다.

◆우리의 작업실은 농성의 현장

파견미술팀의 일원인 전미영 조각가는 "농성의 현장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 진다"고 말한다. 마치

강도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을 그냥 모른척하고 두고 갈 수 없듯이 그녀에게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은 그저 지나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10명 남짓의 미술가들은 그들의 작업실을 실내에서 농성의 현장으로 교체해 그 자리에서 창작활동을 할 시작했다.

현장으로 찾아가길 때 파견미술팀은 특별히 관련 단체 및 사람들과 약속하거나 따로 계획을 잡지도 않는다. 대신 현장의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현장으로 떠난다. 전미영씨는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거늘 앉은자리가 불편할 때, 몸을 움직여 현장에 가면 먼저 도착하거나 친구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파견미술가들은 현장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이용해 작품을 창작한다. 주로 벽화와 걸개그림을 그렸고 용상참사 당시엔 사람들의 영정사진을 그리는 작업도 했다. 주재료는 현장의 모든 물건들이다. △버려진 매트리스 △합판조각 △이부자리 등 현장의 물건, 공간이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도화지인 셈이다.

◆그들은 지금도 현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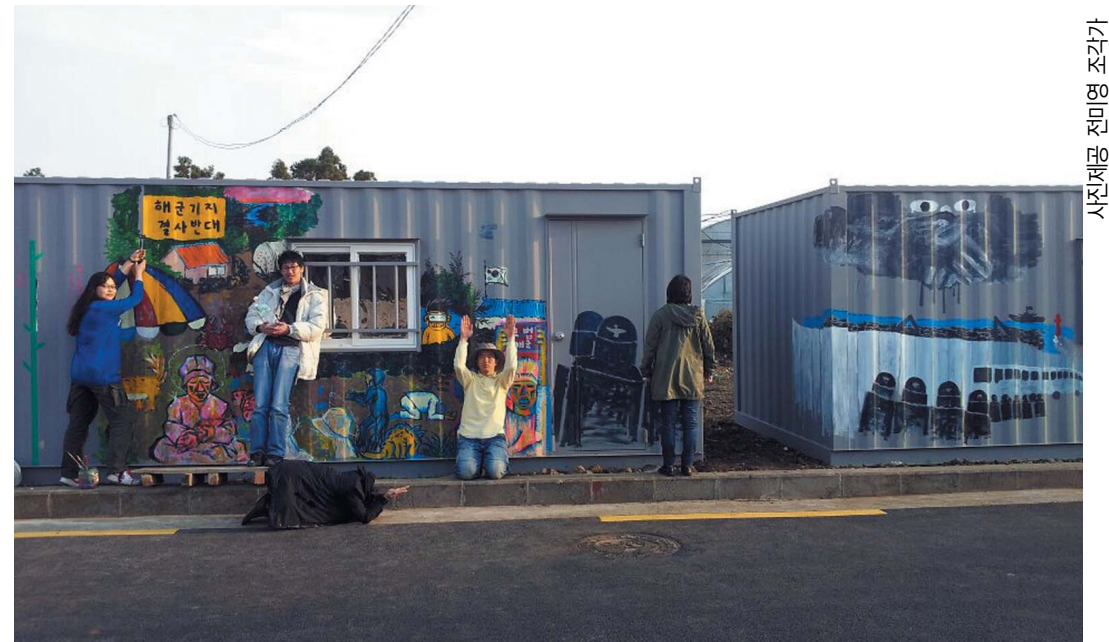
전미영 조각가를 비롯한 파견미술팀은 3월초부터 지금까지 매주 △화 △수 △목을 제주도 강정마

을에서 보낸다. 거처는 마을주민들이 마련해준 컨테이너 박스 2칸이다. 하지만 파견미술가들은 컨테이너에 벽화그림을 그려 넣었을 뿐 컨테이너는 파견미술가들이 아닌 다른 활동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근처 펜션에서 밤을 보낸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힘든 점은 없어요"라며 "힘들면 저희도 이 일 못 합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요즘 이들이 꾸준히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는 이유는 강정마을을 해군기지가 건설될 마을이 아닌 평화의 가치를 지닌 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미술'을 매개로 관심의 필요성을 표현하려 애쓴다.

앞으로 파견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자 전미영 조각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현장이 사라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며 웃을 뿐. 이들은 미술을 통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벗어나 그 너머의 해답을 찾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고. 한가한 예술가들이나 이런 일을 하지 누가 하겠냐며 담담히 말하는 파견미술가. 현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강정마을 주민들이 빌려온 컨테이너 벽면에 그림을 그려 넣은 파견미술팀.

사진제공 전미영 조각가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 칼럼

서상아 기자

지구는 돌고 도네 돌아가네

색색의 띠를 두른 사람들이 검은 구체안을 해염치고 있습니다. 아니, 제목이 '몽키 퍼즐'이니 원숭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꼬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굵은 드로잉과 알록달록하고 개성 있는 색감이 매력적인 이 작품의 아버지는? 바로 대중과 예술의 조화를 도모했던 팝 아티스트 '키스해링'입니다. 키스해링 작품이 새겨진 머그컵이나 티셔츠 한 장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도 모르겠네요. 1970년대 뉴욕 지하철에 설치된 광고들은 기간이 지나면 검은 천으로 덮이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때 검은 천위에 흰 분필로 거칠없이 드로잉을 하기 시작한 키스해링은 "예술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도시 곳곳에 작업을 해냅니다. 그의 작품에는 반핵, 인종차별, 에이즈 등 당시 사회의 고민이 녹아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의 고뇌를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거장이라 불릴만하죠.



키스해링 <몽키 퍼즐>

저는 2년 전 수습기자 꼬리표를 떼자마자 '그림 읽어주는 기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술대학은 없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학교 구성원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덜컥 미술칼럼을 써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미술'은 싫었습니다.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 그림을 통해 우리네 세상의 천대만상을 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부조리 속에서 정의를, 그리고 잔혹한 현실에서 사랑을 외치는 것이 저의 작은 사명이었습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 넘쳐나는 글 가운데서도 학교 신문에 연재되는 조그만 칼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칼럼 잘 봤다'는 주변사람들의 한마디에 없던 아이디어도 솟아나면,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호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돌고 도는 한 저 또한 글쓰기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독자님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은수 기자의 들찬길* ⑤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상처에 상처를 남겨도

우리나라 역사를 가리켜 한(恨)의 역사라고들 한다. 그만큼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풍파가 그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주 수요일(6일)은 1025차 수요일 열릴 예정이다. 역사 문제로 일본 정부와 씨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놓고 벌어진 일도 집집한 일례로 남을 것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기억을 담고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개관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5억원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트집 잡아 항의한 것이다. 박물관이 개관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원래 박물관 위치로 거론되던 곳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부였다. 하지만 일부 독립유공단체에서 공원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다. '손녀들의 문제는 할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의 일'이라며 못마땅해 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들에게 대한 여러 문제들도 아직 처리되지 못했는데 '위안부' 문제가 끼는 것이 불만스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됐던 소녀비, 이제는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러왔던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 자리 잡은 곳이 지금 위치다. 지난 달 27일(일) 기자가 방문했을 때, 박물관이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 어렵다는 것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겨우 세워진 곳임에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과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본 정부나 일부 단체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지난 해 8월 30일(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또 다른 상처들을 안고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들.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의 지만이 그녀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현실이 관망하는 내내 불편하게 다가온다.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恨)이 서린 이 박물관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기록할 날은 언제 올 수 있을까.



토끼와 다람쥐도 아는 공평함?!

‘사이좋은’ 국제경영학을 강의하다

#1 글로벌경영대학 박병일 교수

본지는 이번 951호부터 기존의 교양면을 학술면으로 개편해 우리학교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멀게만 느껴졌을 연구들을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경영대학 박병일 교수. 패권국의 관점에서 분석하던 국제경영학을 비(非)패권국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박 교수가 생각하는 국제경영학은 기존의 관점과 어떻게 다를까?

편집자주

Q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해주세요.

A 제 전공은 국제경영학입니다.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전략(FDI)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통상적으로 국제경영학의 주체는 소위 패권국들입니다. 상대적인 강대국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외받는 계층,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심을 전공인 경영학에 접목시키다보니, 패권국이 아니라 비패권국의 시선에서 현상을 연구하고 있지요.

Q 기존 관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동일한 현상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논문에서 쓰인 흡수능력이론을 소개해보지요. 흡수하는 능력은 곧 지식을 습득하는 나라의 능력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잘 배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학습의지나 사전지식 보유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식을 이전 받는 나라의 태도와 실력이 지식이전 효과를 판가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업성취도가 학생 능력에만 달려있을까요? 교수가 소위 ‘인간 수면제’라 수업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강의에 몰입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지식을 이전받는 국가의 학습능력 못지않게 지식을 전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에만 강의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능력 및 학습환경도 지식 흡수 능력과 비등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Q 지식전달 능력의 중요성이 실제로 확인된 예가 있나요?

A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에 지부를 둔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 앞서 말한 논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호혜적 지원을 강조하더군요.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입니다. 단기적인 연수나 훈련보다는 선진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지식을 이전받는 국가에 파견해서 일상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경영노하우 같은 암묵적 지식은 전작성이 있어 쉽게 이전되지 않는다고들 말하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를 돕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Q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A 해외직접투자(FDI)의 범주에 속하는 FTA에 대한 관점도 각 나라의 정부마다 다르지요. 첫 번째로는 FDI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고용증진 △경상수지 개선 △해외자본 유치 등의 장

점 때문에 FDI를 유치하는 현지 국가는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에서는 FTA를 확대하겠지요.

이와 반대로 FDI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정부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옛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국가를 수탈해서 생산한 이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과 현재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정부에서는 FTA를 체결하면 할수록 선진

국에 예측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FDI가 무조건적인 비용이나 이익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수반하는데,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FDI를 수용하고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FDI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 관점처럼 FDI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정부들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창출도 좋지만 현지국가에 어떤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이를 설명합니다.

Q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기업에게 CSR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A 이해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언론 △정부 △NGO 등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하지요. 기업이 이윤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해당사자라면 기업이 CSR을 확대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나이키(NIKE)에서 △베트남 △카오스 △캄보디아 등지의 공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면 나이키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업이익이

감소하게 될 테니 기업입장에서도 기업 명성도와 직결되는 CSR을 간과할 수 없게 되지요. 기업의 CSR 활동이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 곧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CSR은 다국적 기업과 현지 국가가 윈-윈(win-win)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Q 상대적인 약소국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특별하게 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다만 딸아이에게 읽어준 동화책 중 이런 내용이 기억나네요. 산에서 만난 다람쥐와 토끼가 사이좋게 밤을 주웠습니다.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던 다람쥐가 ‘내일 다시 만나서 밤을 다시 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 토끼의 집을 찾아 갑니다. 그렇게 토끼의 집에 도착한 다람쥐는 깜짝 놀랍니다. 토끼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보다 훨씬 많아서였습니다. 토끼의 가족이 훨씬 많은데도 밤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한 다람쥐는 주머니에 있던 밤을 꺼내 집 앞에 놓고 문을 노크한 뒤 돌아갑니다. 밖으로 나온 토끼는 ‘사이좋게 똑같이 똑같이’라고 적은 다람쥐에 메모에 빙그레 웃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도 진정한 ‘공평함’이 무엇인지를 담으면서 정작 어른인 우리는 이를 똑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박병일 교수 (글로벌경영대학)

박병일 교수는 국제경영학(International business)중에, 특히 다국적기업경영과 해외직접투자전략(FDI)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부터 5년간에 걸쳐 △Asian Business & Management △Management Decis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등의 SSCI급 저널에 13편의 논문(제1 저자 11편, 공저 2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매년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학술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건설(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12)을 편찬하였다. 이번 해 4월에는 우리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연구업적우수상(2011년 기준)을 수상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세상을

책 it out

기자가 선정한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안지혜 기자

사람이 옷을 입는다? 옷이 사람을 입는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가 ‘복장’일 것이라고 생각 해 본적 있는지. 치마와 레이스,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각각 여성과 남성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때 성별과 의상의 관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여장을 하고 한 남자와 사랑을 이어 온 중국 오페라 배우 ‘송’의 이야기 또한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여성이라는 일반적 상식 아래 가능할 수 있던 애기다.

어느 날 오페라를 보러 갔던 중국 주재 프랑스 외교관 ‘갈리마르’는 여배우 송의 신비한 동양적 매력에 매료된다. 그 후 그 둘은 20년 동안이나 연인관계를 지속한다. 그러나 「M,나비」가 “그 후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여느 로맨스 작품들과 다른 까닭이 작품 말미에 있다. 송이 실은 여장을 한 남자였다는 충격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아 갈리마르와 관계를 계속하며 프랑스 외교 기밀들을 빼내는 스파이였다.

어떻게 송이 20년 동안이나 갈리마르를 속일 수 있었을까? 송은 교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앞에서 옷을 벗은 적이 없었다. 갈리마르 또한 송을 존중했던 까닭에 구태여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나 송은 걸치고 있던 옷가지를 하나씩 벗으며 갈리마르 앞에 정체를 드러낸다. “갈리마르, 똑바로 봐요. 여기 당신과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진 내가 진짜 ‘나’예요. 여기 옷을 벗은 진짜 내 모습을 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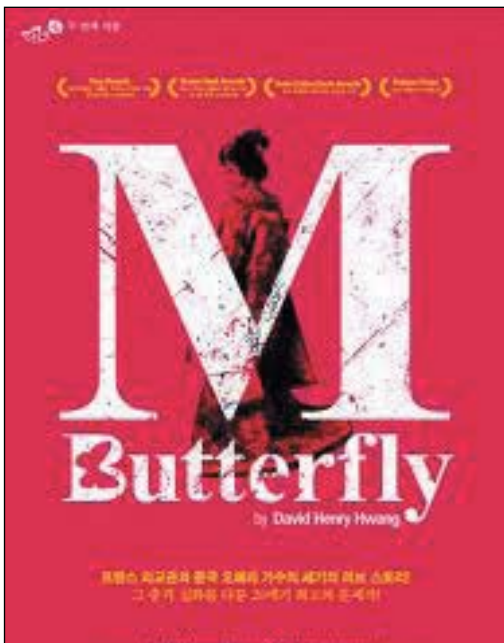
혹여 갈리마르가 송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라 치자. 그렇다면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 복장이 성별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20년 동안 ‘송’이 여자였던 까닭은 그가 여성의 말투와 행동뿐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원피스 형태의 중국 전통의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본인의 정체를 밝힐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옷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의상은 단순히 성별 뿐 아니라 개인의 정

체성과 하는 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 시절, 불편한 교복 대신 편한 체육복을 입고 공부를 해 본 적이 있나. 몸이 편안해 공부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책상에서 편안히 취침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교복이 몸에 약간의 긴장감을 줌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바지 근무’는 복장이 사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게 하는 또 다른 예다. 서울시는 에너지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공무원들의 반바지, 샌들 착용 근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유로운 복장이 꼼꼼하고 섬세한 일처리가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직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복장의 자유가 근무정신의 자유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옷이 사람을 입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데이비드 헨리 황작 <M,나비>

학생 없는 학교 일은 없다



기자는 지난 달 8일(화)에 발행된 본지 949호 1면에 대학평의회(이하 대평의)에 관한 기사를 썼다. 성원부족으로 대평의가 연이어 열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사안을 알리는 기사였다. 그런데 949호 독자 비평을 받고 보니 ‘대학평의회 관련 기사보다 원어수업, 도서관 이용실태 관련 기사들이 더 실질적이고 공감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낮은 개념인 대평의에 대한 기사보다는 학생들과 좀 더 밀접한 기사가 비교적 거리감 없이 다가옴은 당연하다. 다만 기자는 대평의 자체가 학생들에게 낯설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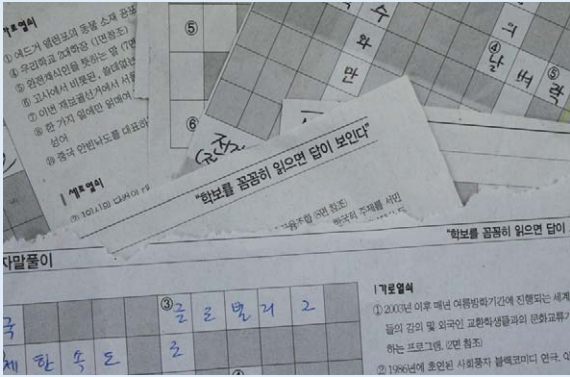
대평의는 대학법인이사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감시체계이다. 대평의 성원 11명 중 2명은 학생대표로 구성되며, 학생대표 2인 중 1인은 학교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학생대표이기도 하다. 학생대표가 있으니 대평의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든 그저 믿고 맡기기만 해도 되는 것일까.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서 학생 입장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을 뽑아 놓고 나서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것처럼, 학내 정치에서도 대표자를 뽑는 일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 없이는 기껏 뽑아놓은 학생회조차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지난 달 23일(수)에 열린 서울배움터 전체학생정기총회(이하 정총)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은만한 문제들을 안건으로 상정했음에도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평의 같은 학생 개인과 직결되지 않는 회의체계까지 관심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바람인 것일까. 무관심한 학생은 있어도, 학생 없는 학교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의 아이러니다.

일시 정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번 학기 6번의 발행 동안 외대학보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모았습니다. ‘학보를 꼼꼼히 읽고 답을 보신’ 여러분의 십자말풀이 정답은 저희 기자들의 책임감을 더했고, 더 좋은 신문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본지는 이번 달 5일(화)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의 발행을 마칩니다. 한 학기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구성과 글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글·사진 조인우 기자

홈페서(HUFS+professor)의 소리

교양과정위
과학기술분과
김소희 전임강사



맛있는 물은 지층을 통과해 인체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미네랄이 녹아 균형을 유지한 천연수를 말한다. 이 중 △칼슘(Ca) △칼륨(K) △규산(SiO₂) 3가지 성분이 맛있는 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에 녹아서 흡수·운반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인체 생리작용에 관계되는 기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은 각종 질병과 신체의 이상 증상을 예방,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동물의 소리

프리랜서 방송작가
형호순
(한교과 90)



대학을 졸업한 지 스무 해가 다 돼가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모교 소식은 나를 청춘의 그때로 다시 돌려놓는 듯 가슴 설레게 한다. 얼마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우리학교 방문으로 언론의 이목이 모교에 집중되었을 때도 그랬고, 몇 년 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을 때도 나는 모교와 내 청춘의 한때를 먼저 떠올렸다.

언젠가 우리학교의 미네르바 동산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

자마자 시원한 물 한잔을 마시는 것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일본 후생성 ‘맛있는 물 연구회’는 맛있는 물의 조건으로 경도 10~100mg/ℓ, 유리탄산(물에 녹아있는 탄산가스) 3~30mg/ℓ 등 9개 항목을 만들어 제시했고, 정수장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도가 높을수록 물은 강한 맛이 나고 연수에 가까울수록 물맛은 좋아진다.

물맛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적당량의 칼륨은 물맛을 향상시키지만 지나치면 짝맛을 낸다. 우리나라 음식 중 김치, 된장국 등은 칼륨(K)이 많이 들어 있어 인체의 칼슘(Ca)을 조절해 혈압을 낮춘다. 또한, 규산(SiO₂)은 물맛을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작

용을 한다. 우리 선조들이 웅달샘에 차돌 등을 놓아 맛있는 물을 만들어 먹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물맛을 없애는 성분으로는 △마그네슘(Mg) △황산이온(SO₄) △염소 등이 있다. 수돗물의 살균에 염소주입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물에 염소취가 강해져 물맛이 없어지게 되며, 마그네슘에는 쓴 맛의 성분이 들어 있어 상당한 불쾌감을 준다. 또한 황산이온은 칼슘을 줄여버리는 작용을 하여 물맛을 없앤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본의 한 학자가 자연 상태의 약수와 인공약수로 실험해 ‘맛있는 물’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그는 △칼슘 △칼륨 △규산 농도를 합한 값과 마그네슘과 황산이온의 합계로 나눈 값이 클 때 ‘맛있는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

다. 또한, 일본 오사카대의 후지다 교수는 1986년에 일본인의 사망률과 하천의 칼슘(Ca)농도와 나트륨(Na)농도 차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과, 이 차이가 클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을 밝혀 ‘건강에 좋은 물의 지표 KI(K index)’를 제안하였다.

마셨을 때 맛이 좋은 물은 곧 몸에도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선별해서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 맛있고 좋은 물을 마셔 건강을 지키고 싶지만 눈으로 확인하거나 맛으로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익혀서 맛있고 좋은 물을 선별하여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대, 날갯짓을 준비하라!

을 때, 나는 내 청춘의 추억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쉽고 안타까웠다. 미네르바 동산이 없어지기 전, 학교를 다닌 동문들은 모두 미네르바 동산에 대한 추억을 한두 가지쯤은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다. 미네르바 동산은 좁은 서울배움터에서 사시사철 모습을 바꾸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사색과 고뇌, 낭만이 어우러진 젊음의 공간이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선배들로부터 “미네르바의 율빠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철학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은 하루 아침에 채워지지 않으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는 대학 생활의 3년을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 외에 다른 취업 준비는 별로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TV의 후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대학 졸업 후 방송작가의 길로 이어졌다. 졸업 후 20년 가까이 글 쓰는 일을 하며 살고 있고, TV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수많은 홍보영화 시나리오를 써왔지만, 나는 내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싶고, 그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은 비싼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취업을

걱정하며 발을 구르지 말고, 조금 더 느긋하게 내면의 성숙과 함께 견고한 지혜의 탑을 쌓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100세 인생의 시대에서 20대 초, 중반은 서둘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무슨 일을 갖는가가 아니라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가 아닐까?

우리학교의 미네르바 동산은 없어졌지만 본관 건물이 ‘미네르바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섰으니, 모교에서 지혜의 여신은 모습만 달리했을 뿐, 우리 곁에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면, 황혼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며 보자. 황혼에 날갯짓을 하기 위해,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 그대들의 힘찬 날갯짓이 지치지 않는 오랜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꼼꼼한 교정, 십자말풀이도 예외는 아냐

이번 호는 역시 학교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대동제’가 1면을 장식했다. 총 1면과 3면, 6면의 일부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축제를 처음 접한 새내기 입장에서 볼 때, 축제라는 행사의 중요도에 비해 지면 할애나 내용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950호에서는 서울배움터의 대동제만을 다뤄 글로벌캠퍼스의 축제는 그 다음호에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축제 보도가 연달아 실릴 경우, 내용과 형식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다뤄질 텐데 식상하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축제에 대한 소식보도를 한 주 미뤄, 두 캠퍼스 간에 축제를 비교하여 사진과 분위기를 담아낸다면 학우들도 두 축제의 공통점과 각 캠퍼스만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학보의 내용도 더 다양하고 참신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이번호 십자말풀이의 가로열쇠와 세로열쇠의 질문이 바뀌어 있으며 가로 5번과 세로 5번의 번호도 잘못 새겨져 있다.

십자말풀이는 완성한 독자에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줄뿐만 아니라, 독자와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학보가 우리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십자말풀이도 신문의 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꼼꼼한 교정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 정치풍자가 화두가 되는 요즘 추세에 발맞추어 블랙코미디인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을 소개한 것이 눈에 띄었다. 단순히 대학로에서 인기가 많은 연극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트렌드에 맞춰 블랙코미디 연극을 선정한 것이 좋았다.

또한 작품소개로만 끝나지 않고 연출자를 직접 만나 연출 계기와 의도를 인터뷰한 것 또한 학보가 단순히 학교신문에 지나지 않고 일간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연극이 어느 극장에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줬다면 더욱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끝으로 언제나 우리학교의 소식을 알리고 학우들의 소리를 대변하기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고하는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꾸준히 좋은 신문을 만들길 기대해본다.

5월의 마지막 학보를 읽으며

이번 호는 5월의 마지막 신문이었다. 1면이 축제와 취업특강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디아블로3을 소재로 한 칼럼이 흥미로웠다.

축제기간인 만큼 축제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잘 돼있고, 축제기간 중에 놓치기 쉬운 취업특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전국을 게임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디아블로3’라는 소재를 활용해 독자에게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 내용도 5월이 가고나면 얼마 뒤에 기말고사인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5월을 잘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인상 깊었다.

축제에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뤘는데 학내 브리핑을 통해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 했다. 그리고 3면의 기숙사 축제에 대해 비교하듯이 나열한 구성은 흥미로웠다. 또한 졸업을 앞둔 매년 새내기인 법대 08학번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학우들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면을 활용해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룸으로써 학우들에게 지구촌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층기획으로 ‘운동’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써 학우들에게 무료 체지방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까지 더한, 매우 깔끔한 구성이 돋보였다.

사회문화 면에서는 대학로 공연 중에서 ‘칠수와 만수’라는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 대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한번쯤 하게 할 만한 공연을 소개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성하 교수님을 인터뷰한 12면은 5월을 보내며 다시 한 번 스승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면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흔하게 알려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외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관심 밖에 있었던 입양의 날(5/11)이나 부부의 날(5/21)까지는 미처 신경쓰지 못한 것이다.

좋은 학보란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상황 및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월의 마지막 학보인 이번 학보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았다.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외대학보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청년의 힘을 말하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문구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오늘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다짐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앞서곤 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외교관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 영어과(81학번)를 졸업한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다.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그의 철학을 듣고 청년의 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자.

편집자주

Q 선배님, 안녕하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이라는 선배님의 말씀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인 우리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A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화폐나 국기가 전시돼 있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백발백중, 분명 우리나라의 화폐나 국기를 본능적으로 찾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외교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는 여러분 모두인 셈이죠.

Q 선배님께서도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힘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외교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세네갈은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국가입니다. 제가 세네갈에서 근무하던 당시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는데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1960년대 초반 해도 세네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던 국가였어요. 우리나라와 세네갈의 위치가 뒤바뀐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그 이유를 우리 청년들의 저력에서 찾았습니다. 세네갈이 잃어버린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부모 세대의 교육열로 청년들을 키운 것이죠. 그 청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쟁점에는 청년들의 거센 찬반양론이나 촛불시위 등이 동반되곤 하는데, 이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물론 직접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입장에서 국론이 한 방향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상황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찬성과 반대 양 측이 모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차 균형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어느 한 쪽으로 고정관념을 갖는 대신 양 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구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이 건전하게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본받을 점을 본받고 버려야 할 단점은 버려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Q 그렇다면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라 바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민간외교도 있습니다. △경제 △학문 △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한 여러분들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학교에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특성 상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 무척 많습니다. 이 학생들과 어울리며 우리나라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최고의 외교 활동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내가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외교는 생각보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Q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말은 우리 학교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우리학교 선배가 아닌 외교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학교는 정말 세계를 품고 있나요?

A 사실 우리학교 학생 중 일부가 저번 오바마 대통령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교관의 눈으로 볼 때 미국 현직 대통령의 학교 연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대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를 방문

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가 우리학교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학교를 방문하는 일은 향후 50년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은 외교 역사의 일부에 직접 몸을 담은 셈이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Q 우리학교에는 세계를 향해 나가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외교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꿈을 이루려면 어떤 능력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A 신입 외교관들은 흔히들 영어 때문에 고생하곤 합니다. 외교 현장의 일을 모두 기록해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 대표자들의 연설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역량의 영어를 모두 받아 적으려니 저절로 ‘영어를 좀 더 폭넓게 공부할 걸’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관 뿐 아니라 모든 국제적 직업들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영어는 외국어’라는 생각을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세계로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릅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겐 세계로 나아갈 기회는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도록 도와주는 운은 공평하지 않아요. 적당히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치열한 마음으로 실력을 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행운의 여신도 기꺼이 미소지어 줄 겁니다.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마주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 지난달 30일(수)에 열린 영어대 동문특강에서 연사로 나온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있다.

외대학보 제 1회 학술대전

-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 공모 기간 : 6월 9일(금)부터 ~ 9월 28일(금)까지
-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1)
- ▶ 모집 분야
 - 중·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 수상작 발표 : 2012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 문의 사항 : 02-2173-2504

- ▶ 상금
 - 1등 70만원 및 상패
 - 2등 50만원 및 상패
 - 3등 30만원 및 상패
-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